

주류 PET용기 시장 선도

틈새시장 공략에 주력

- 1987. 8. 일본 아오끼사의 한국 총 대리점으로 창업
- 1988. 10. 인천 부평구 임학동 소재 공장으로 이전
- 1990. 2. SB III 100LL-20LL-20(1호기)도입 - 마스카라병 생산설비
- 1991. 3. SB III 500LL-75(2호기)도입. - 테니스볼 케이스 생산 설비
- 1991. 12. 만성혜 사장 2대 사장으로 취임
- 1992. 4. SB III 250LL-50(3호기)도입
- 1993. 9. SB III 250LL -50(4호기)도입
- 1994. 10. SB III 250LL -50(6호기)도입
- 1995. 4. ASB 70DPH(5호기)도입 -광구 전용용기
- 1996. 10. 실용신안권 출원공고 (테니스볼 커팅장치)
- 1998. 3. EFB2000도입
- 1998. 12. 의장등록 출원(골프공 포장용기)
- 1998. 12. 중소기업 인증센터로부터 P.E.T BOTTLE,P.E.T CAN에 대한 생산 및 부가서비스 품질 시스템 인증획득(ISO 9002)
- 1999. 5.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번지로 공장 이전(대지 3,000평 건물약500평)
- 1999. 8. 일진실업에서 일진실업(주) 법인 지정 공장 이전 및 준공식
- 2000. 9.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0-12 사무실이전



◀ 만성혜 일진실업(주) 대표이사

근래 들어 우리 주위에서 PET용기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음료병에 국한되어 있던 PET소재의 용기가 물성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주류, 발효식품, 식품기름용기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PET용기의 장점이 라면 가볍고, 내충격성에 강하다, 위생상 안전하다, 배리어성이 뛰어나다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가스차단성 향상 기술과 무균화 포장에 관한 연구로 인해 우유제품, 맥주용기 등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기술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므로 국내 PET 용기업계는 향후 타재질의 용기를 대체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PET용기 시장현황은 (주)효성,



▲ 일진실업 PET용기 라벨 부착라인

(주)삼양사, (주)두산테크팩, 롯데알미늄(주), (주)새한 등의 대기업 군에서 70~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군의 업체에서는 규모가 큰 음료용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각 업체별로 특화된 시장, 예를 들어 주류, 장류, 발효식품류 등의 틈새시장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급하고 있다.

이중에서 탁주(막걸리)와 주류 PET용기 분야에서 꼽을 수 있는 업체라면 일진실업(주)을 들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진실업의 대표이사가 여성이라

는 점이다. 요사이 여성 경영자의 수가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들인데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PET용기제조업은 장치산업이라는 데서 조금은 유별나다.

여성기업인의 진출이 두드러진 분야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조립업이나 정밀을 요하는 분야인데 PET용기제조 분야는 라인을 가지고 대규모로 생산해야 하는 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만성혜 대표이사는 회사를 든든한 반석에 올려놓고 있었다.

현재 일진실업은 년 30억원 규모의 매출과 개수로는 약 4000만개의 PET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만 대표이사는 1991년 12월 회사의 설립자



▲ 일진실업 생산 주류 PET용기

이던 남편의 갑작스런 타계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진실업의 대표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일진실업이 처음부터 PET용기를 생산하던 것을 아니었다. PET생산기계를 주로 생산하던 일본 아오끼사의 한국지사로 처음에는 무역업을 중심으로 기계의 판매에 주력하다가 1990년부터 마스카라병과 테니스볼 포장용기를 중심으로 생산을 개시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인 1992년에 만성혜 현 사장의 남편이던 설립자 고 최남식 사장의 별세로 회사는 한차례 위기를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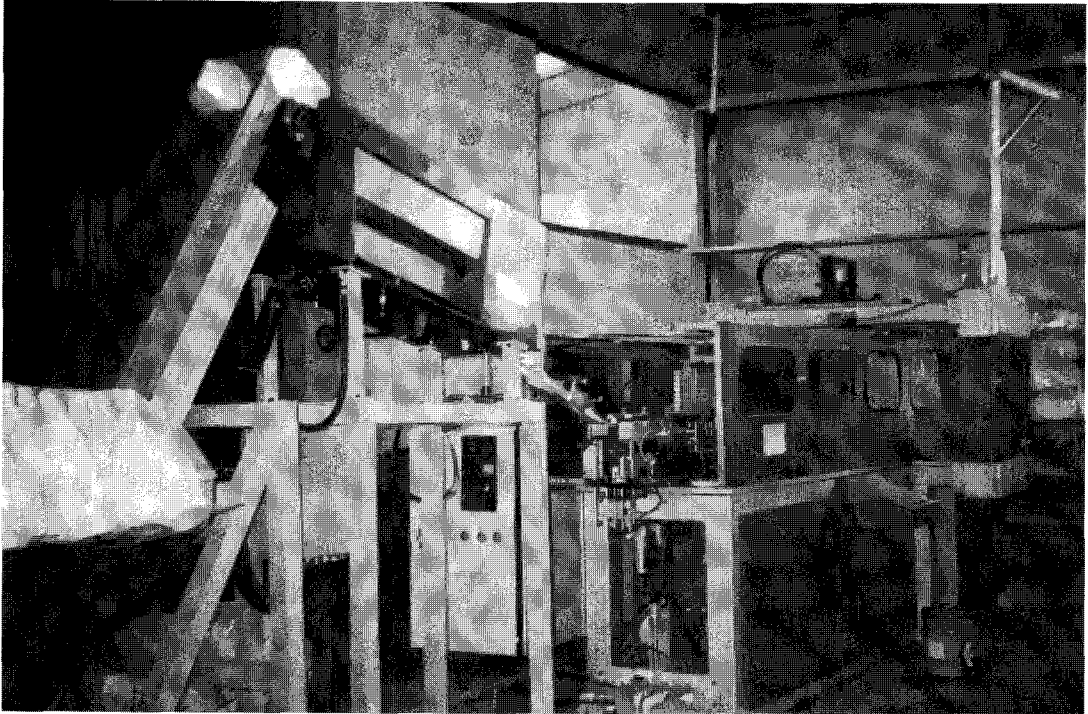
다행히 테니스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낫소사의 테니스볼 포장용기 생산으로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으나 1년 후 낫소사의 부도로 다시 한번 부도 위기를 겪는 등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과감한 시설 투자로 생산 품목의 확대를 꾀하면서 일진실업은 다시금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광구(廣口)용기의 생산으로 회사는 재도약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진실업은 동종업계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일진실업의 회사규모는 3000여평의 부지에 900여평의 공장규모로 생산, 영업, 관리직까지 다 합쳐 40여명의 종업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은 25명 정도에 불과, 끊임없이 지속해온 공장자동화의 성과라고 회사관계자는



▲ 일진실업 PET용기 생산 라인

설명했다. 향후 일진실업은 공장자동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포장업계나 마찬가지로 PET용기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PET용기업계는 대기업의 설비 증설과 과당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큰 타격 없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PET용기업계가 안정된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저변에는 업계 종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나름의 몫이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은 대량생산이 힘든 특성화한 용기시장에 힘을 쏟아야만 공동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 하나 포장산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활용 문제의 해결에 업계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히 PET용기업계는 (사)한국PET용기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현안을 토의,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진실업이 PET용기업계의 일원으로, 나아가 포장산업의 한 구성원으로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

박기진 기자